



<그림 7> 브레인스토밍 구성요소 도출과정

기존 지표를 분석하면 지원(서식처), 도시의 환경자원, 생태 및 녹지분야, 지역의 아름다움과 여유, 자원, 자연생태환경 분야는 자원의 보전으로 생태도시의 전제적 요소인 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공급, 토지이용 및 교통, 정보, 통신, 에너지, 자연접촉 및 조화, 수환경, 토지환경, 생활환경, 사회·경제 환경은 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조절, 환경과 인간의 조화, 도시환경용량에 대한 부하, 도시환경의 질, 물·바람분야, 환경 및 폐기물 분야, 어메니티, 지역의 쾌적함과 조용함, 정책, 대기환경분야는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서 전제되는 요소들로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.

마지막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문화, 어메니티, 지역의 환경보전 노력, 인력, 활동, 인프라, 향유는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.

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구성요소를 보전·이용·관리·참여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, 체계적인 도시관리 추진을 위한 생태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표로 설정하고자 하였다. 또한, 기존지표를 구성요소에 적합하게 구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